

主要經濟動向

經濟企劃院

I. 主要經濟動向

89년 7월의 景氣는 景氣同行指數가 88년 11월 이후의 減少趨勢에서 벗어나 1.3%의 비교적 큰 폭으로 上昇하고 景氣先行指數도 0.3% 상승하였으며, 景氣同行指數 循環變動值가 88년 10월 이후의 減少趨勢에서 增加로 反轉하는 등 6월을 底點으로 하여 바닥을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그러나 景氣가 上昇局面으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勞使紛糾로 인하여 저장된 投資意慾振作과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輸出回複을 위해 모든 經濟主體가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産業生産은 전년동월비 3.0%로 增加勢가 둔화되는 모양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작년 7월 중 産業生産이 勞使紛糾 진정후 급격히 회복됨에 따라 높았던 데 대한 상대적 현상으로 보인다. 製造業稼働率은 77.9%로 금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水準을 보였다.

建築許可面積, 건설수주, 기계수주 등 投資先行指標은 6월에도 호조세를 지속하고 있고, 民間消費도 계속 높은 增加勢를 보이고 있으나, 製造業部門의 기계수주는 부진한 部門間 不均衡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8월들어 勞使紛糾는 발생건수가 크게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勞使紛糾로 인한 직접적인 生産 및 輸出蹉跌은 별로 없었다.

8월말까지 타결된 貨金引上率은 18.4%로 지난해 같은 期間에 비해서는 4.9%포인트가 높아졌으나, 지난 6월 19일 下半期經濟綜合對策

에서 한자리 숫자 원칙을 발표한 이후 시중은행, 政府投資機關등이 10% 이내에서 貨金을 引上함에 따라 연초부터 계속 높아져오던 貨金引上趨勢가 鎮靜되고 있다.

89년 8월중 物價는 전월대비 都賣物價가 0.4%, 소비자물가는 0.8% 상승하였으며 前年末對比로는 都賣物價가 0.5%, 消費者物價가 3.8% 상승하여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향후 추석 및 년말의 물가불안소지를 제거하기 위한 각별한 努力이 요구된다. 都賣物價는 태풍, 수해의 영향으로 농산물이 상승한데다 쇠고기값 상승등으로 畜產物이 크게 올랐으며, 消費者物價는 農畜產物이 큰 폭 상승하고 공산품과 집세, 서비스요금도 상승세가 지속되었다.

한편 6월까지 상승세를 지속하던 全國住宅價格이 7월 들어서 0.2% 下落으로 반전하였다. 新都市開發計劃의 영향 및 土地公概念 擴大導入 推進에 따른 수요자의 관망으로 앞으로도 계속 不動產價格은 下向安定勢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輸出은 7~8월에 들어서도 기대치에 못미치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輸出의 선행 지표인 L/C來到額은 작년 8월에 비하여 14.3%의 높은 增加率을 보이고 있다. 한편, 輸入은 7월에는 전년동월비 14.7% 증가하여 전월에 비하여 增加率이 둔화되었으나, 8월에는 18.5%로 增加率이 높아졌다. 용도별로는 內需用輸入이 24.0% 증가해 전체 輸入增加率을 웃돌았으며 輸出用輸入은 최근 輸出不振을 반영 0.7% 증가하는데 그쳤다.

89년 7월중 經常收支 黑字는 4.3억불, 貿易收

支 黒字은 4.1억불로 지난해에 비하여 크게 둔화되었으나 前月에 비하여는 약간 증가하였다. 이는 수출부진이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그보다 큰 폭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8월중 總通貨는 평잔기준으로 前年同月比 16.9% 증가하여 하반기 通貨供給目標을 유지하였다. 民間部門에서는 住宅資金, 중소기업관련대출등이 擴大되었음에도 기업의 欠 庫호름이 정상화됨에 따라 供給規模가 지난 3월이후 最低水準을 나타냈고, 海外部門과 기타부문에서도 經常收支黒字과 통화채의 純상환등으로 통화가 증발되었으나 정부부문에서는 法人稅納付와 財政執行遲延등으로 통화를 환수하였다.

한편 7월중 海外經濟를 보면 美國經濟는 연초이후의 鈍化勢가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日本과 西獨의 經濟는 民間消費 및 설비투자증대등 內需擴大를 중심으로 호조세를 보였다. 臺灣經濟는 지난달에 이어 비교적 안정된 成長勢를 나타냈으며, 지난해 11%의 높은 성장을 보였던 싱가포르經濟도 금년 들어서 호조세를 지속, 上半期 중 9.1%의 成長率을 기록했다.

勞使紛糾등 우리경제가 겪은 여러가지 어려움은 上半期 經濟成長이 6.5%에 그치는 결과로 나타났다.

上半期 성장수준 자체는 지난 3년간 年平均 12% 水準으로 경제규모가 커진 가운데 6.5%만큼 增加한 것이므로 결코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그 내용면에서 製造業部門이 격심한 勞使紛糾를 반영하여 3.1% 성장에

그친 반면 서비스부문이 7%정도 성장하고, 輸出이 물량기준으로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고 設備投資도 부진한 반면 民間消費가 크게 늘어난 불건전한 모습을 보였다.

우리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中長期的으로 制度를 改善해 나가면서 단기적으로는 지난 3년간 高率의 成長을 경험하면서 들떠있는 經濟社會霧圍氣를 安定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通貨量을 늘리고 金利를 引下하고 換率을 절하하는 등의 浮揚策을 쓰는 것은 經濟安定 沮害, 通常摩擦深化, 구조조정 지연등의 부작용을 가져올 뿐이고 우리경제가 안고있는 體質의 취약점을 改善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만, 輸出不振現狀이 오래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下半期 經濟綜合對策中 檢討段階에 있는 사항은 앞당겨 시행토록 하고 특히 隘路를 겪고 있는 中小企業에 대한 支援 施策은 계속 補完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土地公概念擴大등의 制度改革 과제, 기술개발과 구조조정, 낙후·소외부문의 지원 등 中長期 課題를 蹉跎없이 遂行할 수 있도록 만한의 準備를 해야 한다.

II. 部門別動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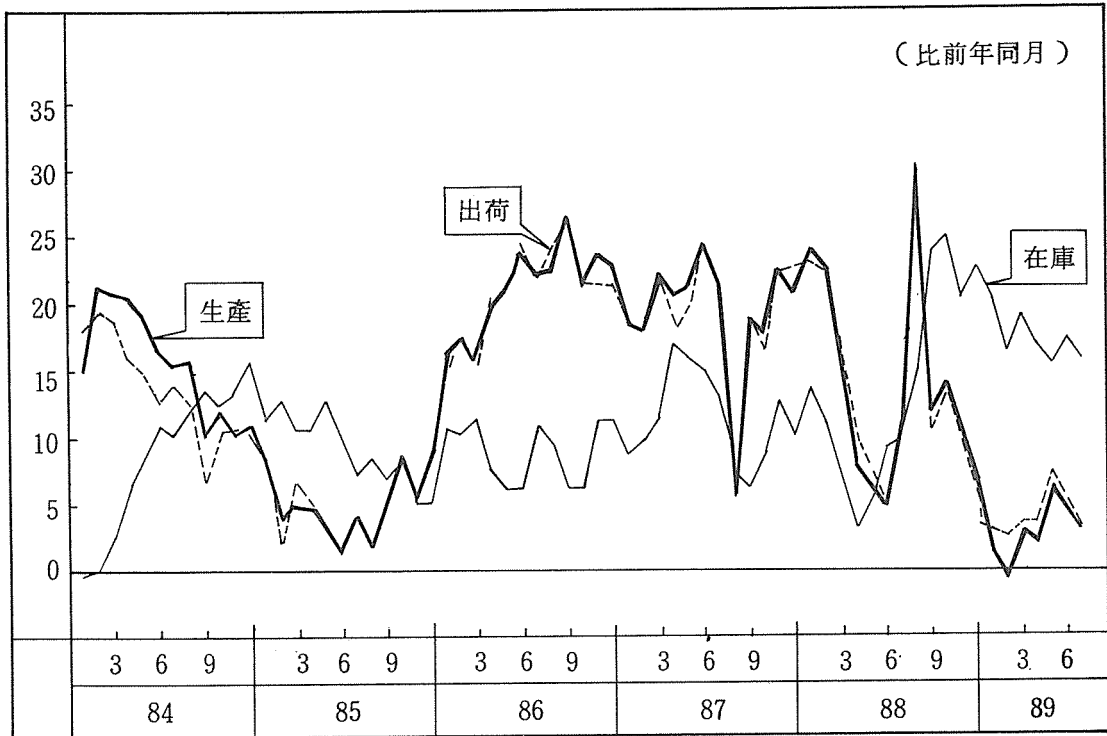
1. 實物動向

< 景氣綜合指數推移 >

(比前月, %)

	1988.7	1989.1	2	3	4	5	6	7 ^{PJ}
同行指數	1.3	-0.4	-0.8	0.0	-0.8	0.1	-0.1	1.3
先行指數	0.6	0.0	-1.0	-0.1	0.2	0.7	-0.1	0.3
同行指數 循環變動值	99.3	98.2	96.9	96.3	94.9	94.4	93.8	94.4

〈生産・出荷・在庫 増加率 推移〉



〈生産活動動向〉

(%)

	1988 年間	7		1989.1/4		2/4		4		5		6		7 ¹⁾	
		比前 月	比前 年同期	比前 分期	比前 年同期	比前 分期	比前 年同期	比前 月	比前 年月	比前 月	比前 年月	比前 月	比前 年月	比前 月	比前 年月
産業生産	13.4	3.0	10.7	-3.7	1.0	-1.3	4.4	-5.8	2.0	4.9	6.1	2.4	5.2	0.8	3.0
出 荷	13.3	4.4	11.2	-1.1	2.8	-2.4	5.5	-5.5	3.6	2.4	7.2	0.9	5.6	2.4	3.7
内需用 ¹⁾	13.6	1.6	12.1	-4.8	8.5	7.8	11.6	-2.3	10.1	2.7	12.0	-1.0	12.4	-0.3	10.4
輸出用 ¹⁾	12.1	5.8	8.7	-12.0	-10.0	-4.7	-10.6	-14.5	-13.7	4.2	-6.2	-1.3	-11.7	4.6	-12.7
在 庫	13.6	1.7	10.0	1.0	18.5	-1.2	16.4	-2.7	16.6	1.2	15.3	5.0	17.2	0.3	15.7
製 造 業 稼 働 率	80.3	80.6		77.1		75.6		73.0		77.0		76.8		77.9	

(註)：季節調整(단, 1)은 原指數)

<景氣>

89년7월의 전반적인 景氣는 6월을 底點으로 하여 바닥세를 지난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景氣狀況을 나타내는 景氣同行指數는 산업생산 및 출하 增加, 제조업 稼動率上昇, 製造業勤勞者 增加, 도소매판매 호조등의 요인이 반영되어 88년 11월 이후의 감소추세에서 벗어나 1.3%의 比較的 큰 폭의 上昇勢^ㄷ 시현하고 있다. 2~3개월 이후의 경기를 예측하는 景氣先行指數는 建築許可面積, 통화등의 증가에 힘입어 국내기계수주등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0.3% 上昇하고 있어 景氣好轉의 可能性을 보이고 있다.

한편, 景氣變動을 나타내는 경기동행지수 循環變動値는 88년 2월을 정점으로 하여 89년 6월까지 16개월간 지속된 減少趨勢에서 증가로 반전되고 있으나 경기가 回復되기 위해서는 勞使紛糾로 인해 저상된 企業家의 投資振作과 최근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수출회복을 위해 모든 經濟主體가 배전의 努力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參考로 70년대 이후 우리經濟의 景氣循環變動을 보면 74년, 79년, 84년 세차례 모두 2월을

정점으로 景氣下降局面에 진입하여 16~19개월 이후 회복추세로 반전하는 形態를 보이고 있다.

<生産·出荷·稼動率>

7월중 産業生産은 전월비 0.8%, 前年同月比 3.0% 增加하여 6월에 비하여 증가세가 鈍化되고 있다. 이는 작년 7월중 산업생산(전년동기비 10.7% 증가)이 노사분규진정후 급격히 회복됨에 따라 높았던데 대한 상대적 현상으로 보인다. 運輸裝備業種과 전기·전자업종이 부진한 반면, 컴퓨터 주변기기등의 一般機械와 醫藥品, PVC안정제등 化學製品은 비교적 활발한 生産活動을 보였다.

出荷도 자동차, 기계등의 內需增加로 전월비 2.4%, 前年同月比 3.7% 增加하였으나 작년 7월의 호조에 대한 상대적 影響으로 증가세가 鈍化되었다. 內需用出荷는 전년동월비 10.4% 증가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輸出이 계속 부진하여 수출용출하는 12.7% 減少하였다. 業種別로는 중 소형 승용차 등 運輸裝備가 전월비 22.1%, 콤팩트, 컴퓨터 주변기기 등 一般機械가 전월에 비하여 10.4% 增加하였다.

生産者 재고는 전월비 0.3%, 前年同月比 15.

<建設投資動向>

(比前年同月·分期, %)

	1988年間	7	1989.1/4	2/4	4	5	6	7 ^{PJ}
建築許可面積	24.6	17.1	27.9	39.0	23.4	37.1	57.7	73.9
住居用	34.6	20.2	18.5	48.0	25.3	34.6	86.9	98.9
工業用	17.7	33.7	25.4	-9.8	15.3	-28.4	-11.9	-18.3
商業用	21.1	1.1	47.2	53.1	21.7	82.2	64.4	113.9
建設受注	0.6	19.7	17.9	82.8	91.3	88.0	71.7	71.6
公共	-22.0	-26.9	-9.3	71.1	64.1	136.6	23.2	63.5
民間	28.3	87.5	42.1	93.1	112.5	56.7	121.8	76.5
(製造業)	(24.6)	(96.8)	(19.2)	(32.4)	(22.3)	(86.2)	(0.6)	(58.6)

7% 增加하였다. 建築需要에 대비한 알루미늄 시바 등 非鐵金屬과 겨울철 需要에 대비한 석유난로 등 冬節期製品, 출하가 부진한 家具製品이 증가를 주도한 반면에 運輸裝備는 出荷好調로 재고가 감소하였다.

한편, 製造業稼働率は 勞使紛糾의 진정과 石油·化學業種의 보수후 정상가동으로 2월이후 가장 높은 77.9% 水準을 유지하였으며, 세계적造船景氣에 힘입어 船舶과 선박용내연기계의 가동율이 크게 增加하였다.

< 投 資 >

投資關聯 선행지표는 建設 및 民間設備投資 모두 전체적으로 好調를 지속하고 있으나, 제조업부문의 建築許可 및 機械受注가 다소 부진한 반면 서비스등 비제조업부문의 投資가 호조를 보이는 부문간 不均衡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建築許可面積은 주거용(98.9%)과 商業用(11.9%)은 크게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工業用은

前年同月比 18.3% 減少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88年 7月の 許可面積 규모가 큰데 따른 반사적 影響으로 前年同月比로 보면 增加率이 크게 감소하고 있으나 실제 許可面積 規模面에서는 평균적 수준을 약간 하회하는 水準이다.

○ 工業用建築許可(千㎡)	88平均	1~6月平均	
	784	739	
	7 月	89.1~5月平均	6 月 7 月
	900	735	914 736

國內建設受注는 公共, 民間部門 모두 큰 폭의 증가를 보여 전체적으로 전년동월비 71.6% 增加하였으며, 公共部門의 道路, 港灣, 住宅과 민간부문의 아파트, 오피스텔建築등이 크게 늘어났다. 한편, 지난달에 0.6% 增加로 부진했던 製造業部門도 電子業界의 증설로 큰 폭으로 늘어났다.

한편 民間設備投資를 예고하는 國內機械受注는 公共部門과 非製造業部門에서 크게 증가하였다. 공공부문에서는 靈光原子力發電所 3,4호기 보조설비와 鐵道廳의 동차, 電氣通信公社의

< 機 械 設 備 投 資 動 向 >

(比前年同月·分期, %)

	1988年間	7	1989.1/4	2 / 4	4	5	6	7 ^{pl}
國內機械受注	25.3	28.9	28.4	32.9	114.6	5.0	0.0	49.9
公 共	-6.2	-32.6	21.0	34.4	622.3	-58.4	-42.1	390.4
民 間	40.6	42.2	30.4	32.3	44.1	34.3	20.3	12.4
(製造業)	(28.0)	(36.0)	(18.1)	(11.3)	(20.8)	(14.0)	(0.0)	(-8.2)
海外機械受注	15.5	-15.0	13.9	27.9	47.4	19.0	16.9	26.7
工業用機械輸入許可	32.2	-28.5	15.7	19.5	53.9	20.8	-1.3	46.6

註：船舶除外

전화교환기발주의 影響으로 前年同月比 390.4% 増加했으며, 비제조업부문도 트럭, 굴삭기등 建設裝備의 발주 증가로 전년동기비 46.4%나 증가하였다. 그러나 제조업부문은 전월에 비해서는 0.1% 増加했으나 작년7월의 호조(36%増加)에 따른 상대적 影響으로 전년동기비로는 8.2% 減少하였다. 一般産業用 機械類 輸入許可는 纖維用, 石油化學用 機械類와 일동기의 輸入增加로 前年同月比 46.6% 増加하였다.

成長潛在力과 장래의 生産能力 배양을 위해서 민간제조업 부문의 投資增大가 주요과제로 대두되고 있어 政府는 臨時投資稅額控除制度등 선별적 投資支援策을 實施하고 있다.

<消費>

6月中 消費關聯 지표는 増加勢가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다. 電氣材料 및 電氣器機, 金屬製品의 増加로 都賣販賣는 前年同月比 5.1%, 小

賣販賣는 11.0% 増加하여 都小賣 전체로는 8.1% 増加하였다.

內需用 消費財出荷도 내구재는 전년동월비 24.4%로 増加勢가 鈍化되었으나 비내구재가 12.7%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16.7%늘어났다.

業種別로는 百貨店 販賣가 전년동월비 22.9%, 슈퍼마켓 販賣는 15.0% 増加하였다.

<主要業種別 動向>

(概況) 7월중 국내산업은 수출부진과 일부 업종에서의 水害 등으로 生産이 전월에 비해 소폭 増加하는데 그쳤다. 內需는 소비패턴의 고급화성향으로 自動車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였으나 계절적 비수기로 인하여 시멘트 등 전자재와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需要는 다소 鈍化되었다. 수출은 價格競爭力 弱化和 선진국의 輸入規制 強化 등의 影響으로 계속 부진하였는데 品目別로는 自動車, 新造船 등 輸送機械部門과

<消費 動 向>

(比前年同月・分期, %)

	1988年間	7	1989.1/4	2/4	4	5	6	7 ^{p)}
都小賣販賣	7.8	7.5	8.0	8.9	8.9	9.1	8.7	8.1
都 賣	10.7	9.1	8.9	6.8	6.4	7.8	6.2	5.1
小 賣	5.2	6.1	7.3	11.2	11.7	10.5	11.3	11.0
內需用 消費財出荷	19.3	19.2	20.2	20.8	17.8	21.6	23.1	16.7
耐久財	32.6	39.1	40.4	39.6	27.3	43.4	49.4	24.4
非耐久財	14.4	11.2	12.3	12.6	13.4	12.3	12.2	12.7

수해가 컸던 신발수출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에 들어와서도 輸出不振現狀이 계속됨에 따라 政府는 換率의 안정적 운용, 貿易어음 제도 導入 및 輸出附帶費用의 경감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수출업체들도 生産性向上, 原價節減 등 企業經營의 合理化와 함께 新市場 開拓에 努力하고 있다.

企業은 構造調整努力 등 自救努力을 통해 經營環境 악화에 根本的인 對處를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技術開發投資를 擴大하여 技術力을 배양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21세기를 향한 尖端産業部門에의 先行投資를 擴大하여야 할 것이다. 자금조달은 金融機關借入을 지양하고 비업무용 부동산매각, 資本市場을 통한 增資 등 기업내실화를 도모하는 方向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自動車) 自動車工業의 生産活動이 回復되고 있는 가운데 內需는 계절적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주문적체물량의 解消를 위한 출고증가로 월간기록으로는 최고실적을 기록하였다. 반면 輸出은 미국내 자동차수요 減少와 現代自動車の 신형엑셀 수출지연으로 부진한 狀態가 지속되었는데 現代自動車는 수출부진의 만회를 위해 8월부터 신형엑셀의 對美輸出을 개시하였다.

한편 그동안 승용차 주문적체현상의 주요 要因으로 작용하였던 트랜스미션과 액슬의 공급 부족현상은 합리화조치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萬都機械, 東亞精機 등의 新規參與로 점차 緩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電氣·電子) 電氣·電子工業은 産業用電子 및 電子部品の 두드러진 신장에도 불구하고 컬러TV, 전자레인지 등 家電部門의 輸出不振으로 緩慢한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家電部門의 경우 그동안 계속되어 온 원貨切上 및 임금인상으로 競爭力이 弱化되어 輸出이 원활하지 못한 가운데 업계도 내수에 치중하여 輸出不振現狀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EC가 韓國產電子製品 전반에 걸쳐 輸入規制를 가해함에 따라 對EC輸出이 격감하고 있는데 업계는 이에 對應하기 위해 덤핑판정에 대한 재심요청, 현지로비활동 強化 및 現地工場 設立 등 積極的으로 對應하고 있다.

한편 海外進出 家電完製品工場에 부품공급을 圓滑히 하고 동시에 歐美國家들이 최근 현지부품의 조달비율을 계속 높이는데 대한 積極的인 對應策의 일환으로 부품공장의 海外進出이 본격화 되고 있다.

(一般機械) 一般機械工業의 生産活動은 하계 휴가에 따른 조업일수단축 등에도 불구하고 전월에 비해 다소 호조를 보였으며 輸出도 회복세를 나타내었다. 生産은 선반, 압연기, 廢水處理裝置, 自動化機器 등에서 호조를 보였으나 移秧機, 木工機械, 建設機械, 재봉기 등은 다소 부진하였다. 輸出은 輸出不振打開을 위한 國內業界의 마케팅活動 強化 등에 힘입어 金屬工作機械, 운반하역기계 등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였다.

한편 수입대체 및 國際競爭力 強化를 위한 機械類와 部品の 국산화개발은 다소 蹉跎을 빚고 있다. 특히 海外依存度가 높은 핵심부품류의 경우 國產化가 시급한 실정이나 開發完了後 需要確保問題 등을 우려하여 國產化開發을 중도포기하는 事例도 發生하고 있다. 따라서 國產化開發에 따른 資金支援, 素材調達 및 開發完了後의 販路確保 등의 對策이 要望되고 있다.

(鐵鋼) 鐵鋼工業은 粗鐵生産量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수 및 輸出不振으로 冷延鋸板, 鋼管 등 일부품목의 재고가 누적되는 등 전월에 이어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최근 國內業體들은 普通鋼외주의 생산구조를 改善하기 위해 研究開發活動을 強化하고 있다. 浦鐵의 스틸 투피스칸용 素材와 탄소공구강재 三美特殊鋼의 초고강인강 등 고급강의 국산개발이 이루어짐으로써 향후 수입대체 및 생산제품의 고부가가치화가 促進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製鋼生産能力 擴大, 고급강생산 증가 등으로 合金鐵需要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국내 生産基盤이 취약하여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철강공업의 발전과 원료확보 側面에서 동품목의 일정 水準의 自給度 유지방안과 함께 合作投資를 통한 海外調達 등 安定的인 供給對策이 要望되고 있다.

(石油化學) 石油化學工業은 전월에 비해 다소 활발한 生産活動을 보였으나 關聯需要産業의 경기부진에 따른 내수감소로 전년동기에 비해서는 성장속도가 크게 鈍化되고 있다. 특히 BR, SBR 등 합성고무제품은 수출증가에도 불구하고 주요 需要産業인 신발공업과 타이어공업의 輸出不振 및 勞使紛糾의 影響으로 生産活動이 매우 위축되고 있다.

한편 PP, PS등 合成樹脂製品은 低價輸入品 범람에 따른 재고누적 및 가동율저하가 초래되고 있는데 업계는 국내에서의 마케팅활동을 強化하는 한편 제품의 고급화 등을 통한 對日輸出을 積極 推進하고 있다.

(非金屬鑛物) 非金屬鑛物業界는 장마의 영향으로 시멘트와 板유리의 내수가 모두 감소하는 등 전월에 이어 부진한 産業活動이 계속되었다. 위생도기와 타일은 비수기 도래와 함께 輸入物量 擴大로 需給不均衡이 緩和됨에 따라 價格도 下落 내지는 보합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편 洋灰業界는 시멘트공업의 성숙기진입에 따른 長期經營戰略의 일환으로 情報通信, 電子部品 및 自動車部品 등으로의 진출을 積極 推進하고 있다.

(織 維) 纖維工業은 주종품인 제품류 수출이 부진하였으나 絲 및 織物類의 輸出이 지속적으로 호조를 보이고 내수출하도 증가함으로써 비교적 活潑한 産業活動을 보였다.

한편 최근 들어 綿絲價格이 다소 상승하고는 있으나 原綿의 國際價格급등에 따라 長期沈滯現狀을 보이고 있는 綿紡業界의 원가부담이 가

중되고 있다. 업계는 제품의 고급화 및 차별화를 통하여 이를 克服하고자 현재의 中·大番手 위주의 生産구조를 細番水 중심으로 전환하는 計劃을 積極 推進하고 있다.

최근 對EC 輸出不振과 EC統속에 對備하여 國內 主要輸出業體의 현지판매 법인설립이 活潑히 推進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가속화될 展望이다.

(신 발) 신발工業은 최대 신발생산지인 부산지역의 수해피해로 인한 생산 및 輸出蹉跌로 부진한 産業活動을 보였다. 국제상사, 화승 등 主要業體들의 경우 신발완제품을 비롯하여 원부자재, 시설기자재 등이 침수됨으로써 상당히 큰 재산피해를 입었다. 현재 이들 업체는 복구를 完了하고 정상가동중에 있으나 원부자재의 공급부족과 納期遲延으로 生産 및 輸出蹉跌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EC가 우리나라 및 대만의 동남아국가를 통한 신발우회수출을 規制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EC와의 통상활동 강화 등 對應策 마련과 아울러 수출물량감소에 대비한 公산권국가와의 直交易擴大가 要望되고 있다.

(造 船) 7월중 新造船受注는 국내 주요조선소가 인도, 그리스, 쿠웨이트선사를 상대로 活潑한 수주상담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시선가가 국제거래가격보다 높아 2.9千G/T에 그쳤다. 7월말 현재 신조선 수주잔량도 6,071.6千G/T로 전월비 4.0% 감소하였으나 월중 건조량은 勞使紛糾 타결이후 그간 지연되었던 건조공정을 短縮하기 위한 가동율제고로 255.3千G/T에 달해 전년동월비 17.3% 증가하였다.

정부는 8월 28일 産業政策審議會에서 大宇造船, 造船公社, 仁川造船에 대한 조선산업 합리화계획을 確定하였다. 이에 따라 이들 3사가 經營正常化를 위해 自救努力을 할 경우 계열사 매각에 대한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를 면제함과 아울러 계열사가 조선업체에 출자할 때도 출자한도 초과금지 조항에서 예외로 인정키로 하였다.